

옆에서 본 저자 홍성태

'신나는 문화사회' 꿈꾸는

나의 친구 성태

이제훈(한겨레 정치부 기자)

# SEOUL

그와 나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함께 술을 마신다. 술자리는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뒷골목에서 현대 계동 사옥 사이의 어느 곳이다. 아마도 열에 여덟은 인사동 어름일 터이고.

약속을 잡을 때, 서로 다짐하듯 말한다. "이번엔 기분 좋을 만큼만 마시고 일찍 헤어지자"고. 그러나 그 다짐을 그나 나나 한번도, 정말 단 한번도 지켜본 적이 없다. 술자리가 언제 시작되든, 파하는 것은 늘 밤 12시를 넘어서다.

알콜중독? 의지박약? 그런 거 아니다. 그저 얘기를 하다보니 그렇게 된 거다(대책 없는 술꾼들은 늘 이런 식으로 변명한다고 해도 할 말 없다). 아주 사적인 얘기에서, 세상사까지, 대화는 종횡을 누빈다. 주로 내가 듣는 편이다. 하여튼 밤도 술도 깊어지면, 누군가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다. 성자들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슴 속에 넘쳐흐르는 미움을 녹이느라, 술잔을 기울인다. 그 미움을 사회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분노가 되나?

홍성태, 사회학을 전공한 상지대학교 교수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유명한 '운동권 교수'다. 교수답지않게, 글 속에 어려운 개념어를 삼가며, 입말투 문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세상 오만가지 일에 관여하는, 텔레비전 화면에 나와 싸움을 걸 듯 누군가를 거세게 공박하는 그는, 피가 뜨거운 청년이다.

그는 나의 대학 동기다. 1985년 3월 입학했으니, 2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낸 셈이다. 때문에 나에게 그는 '홍성태 선생님' 보다는 그냥 '성태'에 가깝다. 이 글은 그와 나의 사적인 만남에서 쌓인 나의 주관적 느낌에 토대를 둔 것이다. 그 때문에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진보학자이자 운동가인 '사회인 홍성태'에 대한 공적인 분석이나 소개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그의 글과 사회활동을 접할 많은 분들이, 홍성태라는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 ◎ 상류사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는 조선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의 하나라던 두물머리(행정지명은 양수리)와, 개발연대 꿈을 안고 서울로 모여든 가난한 사람들의 삶터였던 청량리 산동네에서 어린 시절과 젊은 날을 보냈다. 요컨대 그는 가난하게 살았고, 그에게 (80년대식으로 말해)민중은, 학문의 대상이기 이전에 그와 그의 가족처럼 고단한 삶을 버텨온 이들을 일컫는 보통명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의 삶터가 그러하듯이, 그의 두물머리와 청량리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고즈넉하던 두물머리는 교외 유흥지가 된 지 오래고, 청량리 산동네엔 고층 아파트가 병풍처럼 들어섰다. 그는 '돈'이 '사람'을 밀어내는 이런 변화를 안타까워한다.

그는 맛있는 음식 먹기를 참으로 좋아한다. 대저 부자들은 고급음식점을 찾는 것으로 이런 취향을 충족시키지만, 그는 발품으로

'맛'을 찾아간다. 닭한마리, 닭백숙, 돼지족발, 소주를 곁들인 냉면과 수육, 막걸리와 어울린 흥이 삼합, 정종 대포에 꼬치... 열거한 것들이 시사하듯, '전통 음식'을 즐긴다. 그와 함께 돌아다니는 그 많은 술집과 음식점 또한 대체로 소박하고 깔끔한 운치가 깃든 전통 한옥이다. 대개 좁은 골목길을 한참 돌아야 하고, 그 흔한 맛집 책에도 없는 허름한 곳이 적지 않다. 그에게 음식점은 그저 '먹는 곳'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역사가 만나는, 그래서 각별한 문화적 공간인 까닭이다. 당연하게도 그는 어수선한 간판과 불편한 내부 동선, 불친절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2000년 5월 늦장가를 든 이후로 그는 주말이면 부인과 함께 뭇가를 먹으러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최근엔 마음먹고 감자탕집에 찾아갔는데, 너무 맛이 없었다나 어쩐다.

하여튼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라는 책이 보여주듯, 그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잘 아는 흔적 많은 사람이다. 1965년생 답지 않게, 서울이라는 공간에 스민 역사를 너무도 잘 안다. 그가 어떤 연유로 '서울박사'가 됐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그가 어려서부터 '싸돌아다니기'를 좋아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이들이 다 '서울박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설득력은 제한적이다. 다만 누구든 어슴프레하게 가슴에 담고 있을, 골목길을 뛰놀던 어릴 적 추억을, 사적인 체험에 묶어두지 않고 사회적으로 복원하고 공유하려 애쓰고 있다는 점만은 안다. 그가 문화와개혁을위한시민연대(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나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런 애쓰기의 발로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 일간지 기자는 그를 두고 "이명박 서울시장에겐 '학몽' 같은 존재"라고 비유했다. 이 시장의 '신개발주의'의 이론적·실천적 비판에 힘을 쏟고 있는 그의 불퇴전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리라.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는 이 시장에게 '학몽' 이기보다는, 신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러니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이 시장은 그의 전언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 ◎ 징그럽게 정교한 기억력과 잡학다식

아마 대학 시절이었을 거다. 그와, 지금은 검사가 된 대전 출신 촌놈, 그리고 팬터를 연상케 하는 여학생이 미술관 옆 동물원에 놀러갔다. 여학생이 물었다. "원숭이 엉덩이는 왜 빨개?"라고. 촌놈은 눈을 멀뭇거리고, 그는 20여 분에 걸쳐 설명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 다음 호기심이 하늘을 찌르는 건지, 어려서 동물백과사전을 못 본 건지, 이 여학생 또 묻는다. "기린은 목이 왜 그렇게 길어?"라고. 다시 그는 20여 분에 걸쳐 설명했다. 지치지도 않고, 친절하게! 공짜로 궁금증을 풀 이 여학생 왈, "넌 연애하기는 어렵겠다." 왜? "지루하니까." 이럴 땐 아는 거 많고, 친절할 것도 죄가 된다.

그는 옛일을 말할 때면 반드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낸다.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정교한 기억력과 박학다식은 학자이자 운동가로서 그의 사회적 삶에 큰 도움이 될 터이다. 그러나 그게 자연인 홍성태한테는 부담일 수도 있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망각은 신의 축복'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그가 적당히 무딘 기억력에 의존해 세상을 살아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덜 피곤해 할 것 같은데... 그만큼 그의 세상에 대한 기여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 ◎ 그가 꿈꾸는 세상은

학자로서 그는 특히 정보기술과 환경·생태 분야에서 탁견을 발휘한다. 구체적으론 정보운동과 환경(생태)운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가 주요하게 관여하는 사회운동단체는 민교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을 비롯해, 정보공유연대(IPLet), 진보네트워크센터,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등 다양하다. 당연하게도, 늘 바쁘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 몸을 부러 챙겨야 할 일도, 전문가로서 글과 말로 사회적 발언을 해야 할 일도 많다.

내가 아는 한, 그에게 학자로서의 삶과 운동가로서의 삶은 구별되지 않는다. 이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내가 그를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친구로서 나는 그가 지금보다 훨씬 덜 바쁘기를 바란다. 그는 늘 '더 많은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글을 쓰고 활동하지만, 나는 그가 학자로서 긴 호흡의 연구서를 펴낼 시간과 정신의 여유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가 꿈꾸는 '신나는 문화사회'에서 바쁜 일상은 미덕이 아니라는 걸, 그도 잘 알고 있으리라 나는 믿는다. **한**

